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정동희)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력량계 시험인증 실시한다.



11일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재미있는 발전소 이야기

(16) 수요관리사업은 붐이 김선달(하)

중중 수요관리사업자를 붐이 김선달에 비유하곤 한다. 초기에는 부정적인 면에서 이야기 됐다.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공장이나 건물과 계약한 것만 가지고 전력거래소에 등록해서 돈을 받으니까 말이다. 계약한 내용도 유형의 물건을 만들어 공급한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일정량의 전기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동강을 팔아넘긴 붐이 김선달보다 한수 위 같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력시장에서 정식 사업자로 인정받은 경우를 전제로 말하겠다. 사업자는 공장과 건물이 연중 언제나 줄이겠다고 담보할 수 있는 램을 분석하고 결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전력계측기를 통해 패턴을 수집하고 검증해야 한다. 한국전력의 계측기 이외에 별도의 데이터수집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수많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계측하고 모니터링하고 저장·관리해야 하는 중앙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장 건물간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등록된 자원이 실시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빅데이터나 AI의 개념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자 입장에서 리스크 분산과 헷징(Hedging)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자가 손도 안대고 코를 푸는 측면의 붐이 김선달일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한편으로 스마트한 사업을 하는 붐이 김선달이라고는 말하고 싶다.

일상적인 레드오션에서 반복적인 경쟁을 하는 사업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어울리는 신지식인의 사업이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최적화하고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지식사업이다. 정보와 기술집약적인 블루오션을 선도하는 사업이라는 면에서 붐이 김선달, 아니 그를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 미래에너지 전환시대의 땃땃한 붐이 김선달이 아닐까 싶다.

〈출처: 물구나무 선 발전소〉

·저자: 김성철 (파란에너지 대표이사) ·출판사: 인포더북스

에너지 BIZ

전기신문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5

석탄화력 투자중단 세계적 흐름...한국은?



10일(현지시간) 호주 환경단체 마켓포스는 호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아다니 카마이클(Adani Carmichael)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금융사의 투자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충남도, 아시아 최초 탈석탄동맹 가입
사학·공무원연금, 신규투자 중단 선언
국내 주요 금융사는 투자 '현재진행형'

금융권의 탈석탄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 곳곳의 투자는 행·보합·연기금이 석탄 발전과 관련한 투자에서 손을 떼고 있다. 2013년 노르웨이 개인연금기관인 스토어브랜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매출의 30% 이상을 석탄 분야에서 얻는 기업에는 금융투자를 중단한다는 발표가 대표적인 선언이었다. 이후 유럽의 다양한 금융사들은 석탄에 대한 투자와 지원 감축·중단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다이이치 생명보험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투자 중단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일본기관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일로 평가됐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들의 움직임이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환영했다.

한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달 2일 충청남도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탈석탄 동맹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충남은 각각 당진, 태안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석탄화력 발전 단지를 갖고 있다.

이틀 후인 4일에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내의 석탄 화력에 대한 신규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두 기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와 달리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석탄발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이 11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들의 국내외 발전부문에 대한 금융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적 금융기관이 2008년 이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총 23조 3856억원에 달한다.

국내 석탄화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금융사는 농협금융지주 4조 2616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발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6조 1788억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적 금융기관들은 1조 466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내 석탄 발전사업에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참조)

국의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이어지는 국내 금융사 투자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항의에 나섰다. 지난 10일에는 호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아다니 카마이클'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금융사의 투자 반대 시위에 나섰다. 아다니 카마이클 프로젝트는 호주 최대 규모(100억 달러)의 석탄광산 프로젝트다. 인도계 기업 아다니가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제공 현황 및 순위 (자료: 조배숙 의원실 제공)

기관명	금융제공 금액	
	국내 석탄금융	해외 석탄금융
1 한국수출입은행	-	6조 1,788억원
2 한국무역보험공사	-	5조 387억원
3 농협금융지주**	4조 2,616억원	-
4 국민연금공단	3조 3,371억원	-
5 한국산업은행	(2조 6,010억원)	(3,122억원)
	합계 2조 9,132억원	
6 중소기업은행	1조 416억원	-
7 우정사업본부	6,146억원	-
8 공무원연금공단	300억원	-
9 한국교직원공제회	200억원	-
총계	11조 9,059억원	11조 4,797억원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중 NH투자증권은 상시제로 제출을 거부하여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참고: 기후솔루션이 2018년 1월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NH투자증권의 국내 석탄발전 투자금액은 총 2,7조원에 이룸)

마이클 광산 개발을 추진중이다.

환경 및 금융 관련 단체인 호주 마켓포스(Market Forces)는 이날 시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호주 외교통상부 간 미팅에서 한국이 아다니 카마이클 프로젝트에 자금조달과 개발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아다니의 카마이클 광산 개발은 세계문화유산인 그레이트 배리어리프를 오염시키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환경·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다니는 애보트포인트 석탄터미널 채권을 일부 매각해 카마이클 광산과 부설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미래셋 대우는 올해 7월 아다니 애보트 포인트 터미널이 발행한 선순위 채권 3억3000만 호주 달러를 인수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블레이 팔레스 350.org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서 발표된 IPCC 보고서는 격변적인 기후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1.5°C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고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다니가 제안한 초대형 광산과 같은 사업은 환경에 무모하고 재정적으로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석탄 발전 프로젝트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기는 금융사들을 규탄한 것이다.

김예지 기자 kimyj@

제18회 한국전기문화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가로등 보안등 자동점멸기

GPS 가로등 자동점멸기
【2회로/4회로/6회로】

안방향 가로등 자동점멸기
【4회로/6회로】

전자식 보안등 자동점멸기
【일반형/콘센트】

GPS 보안등 자동점멸기
【일반형/고급형】

방수형

“가로등 접속함”의 선두주자!

누전차단기 방수함
MSB-100

누전차단기 방수함
MSB-200

감전보호기
MS-500

방수형 접속함
LTB-700

경동용 직선접속재
LJB-100

방수형 단자함
MS-210

실리콘 접연캡
MS-1/2/3

미성산업
misung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284 (금정동 한림벤처타운 108호)
Tel 031-451-4147~8 / Fax 031-427-4147
www.misung901.com